

내가 좋아하는 곳 — 나의 고향

제가 좋아하는 곳은 고향입니다.

제 고향은 중국에 있습니다.

고향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고향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제 고향은 백두산과 가깝습니다.

산과 나무가 많고 공기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과일과 채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향에 가면 좋은 추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을 아주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면 고향에 자주 가고
싶습니다.

왕 효연 (초4A)

「내가 좋아하는 곳」

제가 좋아하는 곳은 디즈니랜드 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예쁜 건물과 놀이기구가 많이 있고 너무 재미있는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주 갔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디즈니랜드 입구에 도착하면 음악이 들립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디즈니에 왔다는 실감이 나고 마음이 설렙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쇼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롤러코스터는 잘 못타지만 "빅 샌더 마운틴"은 좋아합니다.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요리도 매력적이라 추천 합니다.

팝콘과 추로스가 유명 합니다. 걸어 다닐 때나 놀이기구를

기다릴 때 먹습니다. 분위기가 까지 더해져 더욱 맛있게 느껴 집니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놀이기구를 탈 때면 손을 흔들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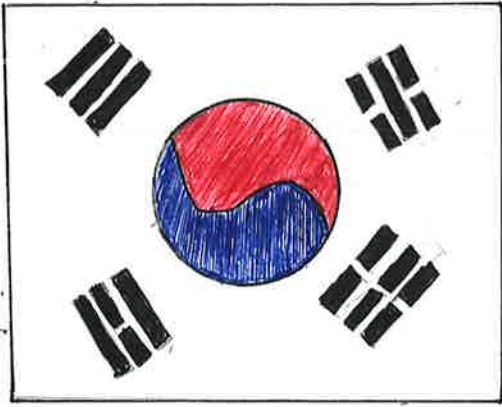
현실에서 벗어나 꿈의 나라에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걸어야 해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면 늘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즈니랜드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령 달린 입니다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을 정말 좋아 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 합니다. 한국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말하기는 쉬운데 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 재미있고 기억에 도잘 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초급 1A

스령 달린

로이입니다

제목 :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다름 기억과 꿈, 삶의 이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과 행복을 꾸꾸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과 성공적인 커리어를 꿈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늘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어쨌든 결코 이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꿈에서라도 어머니를 만나 따뜻한 손을 잡고 안아드리며, 그토록
그리운 어머니를 향해 "엄마"라고 목놓아 불러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겨우 다섯 살 되던 해,
몹쓸 불치병으로 제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어머니는 참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아담한 체구에 크고 맑은 눈,
윤기 나는 긴 검은 머리를 가진 분이셨죠. 아주 어렸을 적엔 이별과 그 슬픔의 깊이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함께 놀러 가고 예뻐움을 받는
단란 친구들을 볼 때면 나도 그리고 있다는 생각에 대로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세상을 적어 가며 많은 일을 겪을수록,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애뜻함은 더
욱 깊어졌습니다. 사이 힘에 부칠 때마다 그 모진 병마와 끝까지 맞서 싸우셨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다시 힘이 솟을 힘을 얻곤 합니다.
비록 어머니는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만의 작고 어두운 보금 자리를 꾸려줍니다 제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가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바로 행복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챙길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들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 Yin Oo Lwin
도시

'좋아 하는 장소'

제가 한국에 온지 한 달밖에 안돼서 구경할 만한 곳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제 고향인 미얀마 P Yin Oo Lwin 도시에 위치해 있는 국립 Kandawgyi 정원입니다. 미얀마의 고산 도시인 P Yin Oo Lwin은 일년 내내 날씨가 시원하며, 다양한 꽃향기와 경치가 아름답고 자연 경관으로 가들하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은 "꽃의도시"로 잘 알고있습니다. P Yin Oo Lwin에는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 특히 자연 폭포, 산상 사원, 불상 하고 국립 Kandawgyi 정원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곳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 국립 Kandawgyi 정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자 합니다. 국립정원은 436.96 에이커가 넓고 자연신림, 아름다운 경치, 난초 농원, 시원하고 맑은 대형 호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Recreation Facilities),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대나무 숲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부족들의 전통 주택과 바게주 지역의 유명한 랜드마크 (Landmark) 들을 건축 미니

(대나무 숲)



(유명한 Landmark)



(오락 행사)



어처 모형으로 전시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작, 검독수리, 흰백조, 사슴, 원숭이, 코끼리 등의 동물들도 키웁니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다양한 오락 행사를 위한 장소도 있습니다. 이 국립 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



호수의 자연을 즐기며 휴식, 사진촬영,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즐깁니다. 넓은 국립 정원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내부에는



(놀이터)↑



(전기 버리카)↑

"전기 버리카"와 미니 열차가 있기 때문에 어른신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국립정원 전체의 자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12월에 꽃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이 국립 Kandawgyi 정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한곳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이 글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호수 위에 있는 다리



유명한 Landmark



전망대



꽃 축제



(다양한 꽃)

나 가 좋아하는 곳, 인천

정사봉

제가 좋아하는 곳은 인천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고 지금 가족과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천의 바다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가족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는 시간도 정말 행복합니다.

인천에는 계양산과 인천대공원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인천대공원에 자주 갑니다. 봄에는 예쁜 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나무가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 때 비행기 내 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운 인천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불편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한국의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한국어에 천천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고 인천을 좋아합니다. 인천은 우리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앞으로 한국어도 더 잘하고 싶고, 아이들과 한국의 아름다운 곳도 더 많이 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는 예쁘고, 공간도 넓어요.

카페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음식도 다양하고, 앉는 위치에 따라 밖의 풍경도
달라요.

여기서 커피를 시켜서 오랫동안 앉을 수 있어요.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와서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좋아요.

2026. 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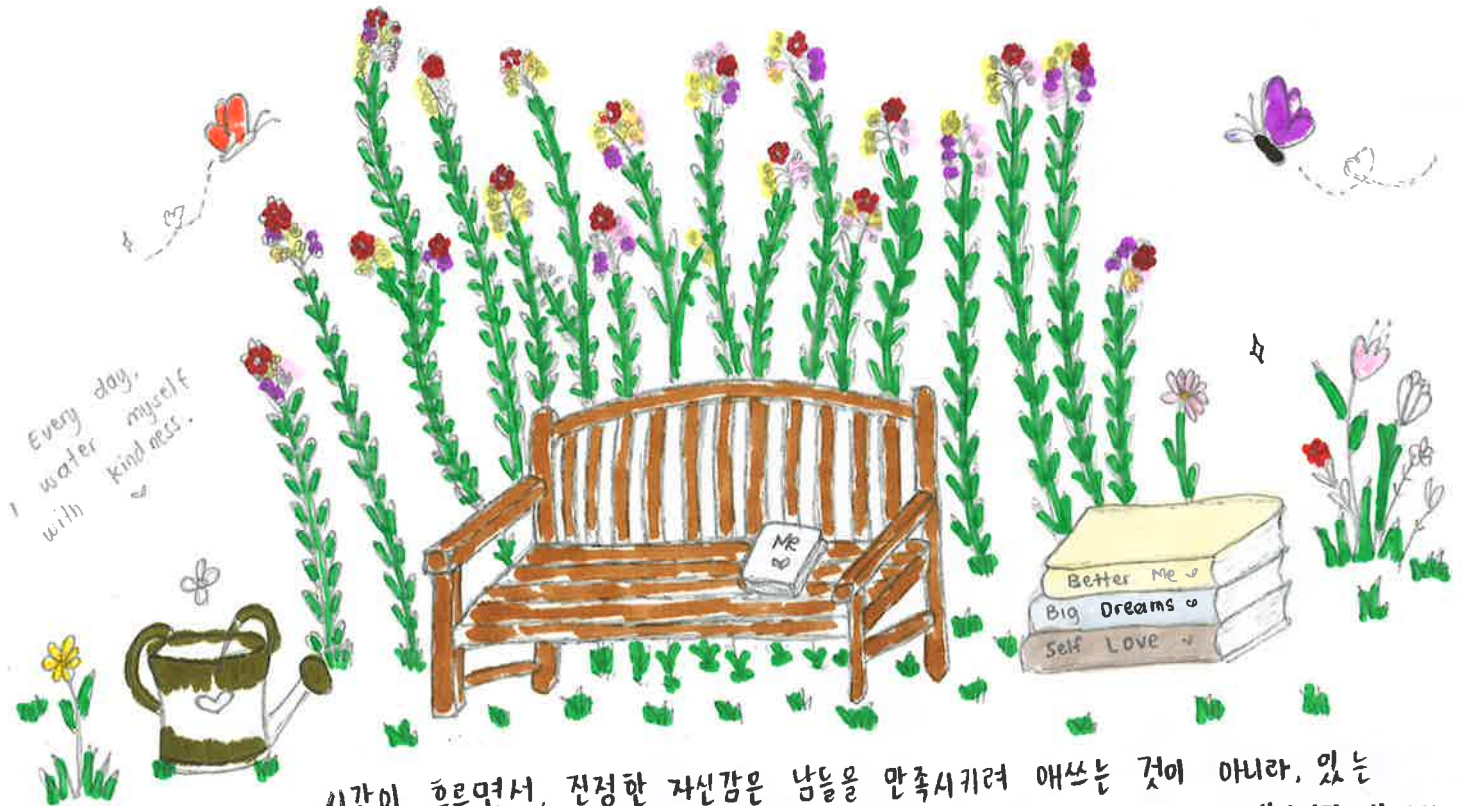
나는 이제 나 자신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

미소 뒤에 숨겨진 나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나약함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썼고, 판단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오해받는 것이 두려웠다.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나 자신을 바꾸곤 했다.

수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내 가치를 판단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 진정한 내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이 좋아하기 위해 나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다. 내 이야기를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오랫동안 남들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자신감은 남들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과 친절,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마음과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건강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 지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음악회
조금 2반

					한	국	에	서	의		생	활										
		저	는		20	24	년		9	월	에		한	국	에		왔	습	니			
		다.		저	음	에	는		한	국	어	를		잘		이	해	하	지			
		못	해	서		다	른		사	람	과		이	야	기	하	는		것	이		
		어	려	웠		습	니	다.		그	래	서		한	국		생	활	이		조	
		금		외		로	고		힘	들	었		습	니	다.		시	간	이		지	나
		면	서		한	국	어	를		더		열	심	히		공	부	하	기			
		시	작		했		습	니	다.		한	국	어	를		조	금		이	해	할	
		수		있		게		되	었		고,		남	편		가	조	과	도		조	금
		이	야	기	할		수		있		게		되	었		습	니	다.		그	래	서
		한	국		생	활	도		조	금		편	해	졌		습	니	다.				
			한	국	에		온		지		8	개	월		정	도		후	에			
		제	11	여	동	생	도		한	국	에		유	학	을		왔	습	니	다.		
		지	금	은		인	하	대	학	교	에	서		공	부	하	고		있	습	니	
		니	다.		여	동	생	이		한	국	에	서		같	이		살	게			
		되	어	서		더		즐	거	고		행	복	해	졌		습	니	다.		저	
		는		한	국	에		온		후		지	금	까	지		베	트	남	에		
		돌	아	가	지		못	했		습	니	다.		부	모	님	이		많	이		
		보	고		싶	었		지	만		베	트	남	에		가	기		어	려	웠	

저의 하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케우니입니다.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하루에는 매일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 합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집안일 다 하고 나면 피곤해서 쉬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일하고 집을 청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재미있는 얘기를 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하지만 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좋은 곳에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제 하루는 특별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로즈마리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제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저희는 이이들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남편, 딸 한명, 아들 5명으로 총 다섯 명이에요. 제 딸은 10살이고 현재 3학년이에요. 제 딸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둘째 아이는 6살이고 유치원에 다녀요. 아들은 공룡을 너무 좋아해요. 막내 아들은 4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녀요. 자동차를 좋아해요. 제 남편은 누나의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헌신적인 주부이자 엄마로서,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센터에 가요.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남편에게 매일 아침 저를 센터에 데려달라고 하고 수업이 끝나면 버스를 타겠다고 말했어요. 집에 왔을 때 점심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청소해요. 네 시에 아들을 데려오고 샤워를 해 주죠. 그리고 밥을 준비하고 세탁기를 돌려요.

남편이 쉬는 날마다 우리 가족은 이마트에 가요. 그리고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가끔은 시누이와 함께 밖에 나가기도 해요. 명절마다 우리 가족은 김포에 가서 형님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함께 식사를 해요. 가족모임에서, 형님이 우리에게 저녁을 대접해요. 휴가 때마다 우리는 형님 댁에 방문하기 위해 수원으로 여행을 가요.

모기에 안 물리려고 우리는 여름철에 종종 실내에 머물러요. 토요일마다 이이와 함께 숙제를 해요. 그리고 같이 영화를 봐요. 가끔 밤늦게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함께 먹어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한국어도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문화가-
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부터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김치를 못 먹었는데 지금은 김치를
잘 먹게 됐어요. 한국에 온 후에 요리를 잘 하게 되고
한국 음식도 잘 먹게 되었어요. 힘들지만 한국 생활이
행복해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저는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절혼해서 아이 한명을 낳았습니다.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은 어려움은 임신이었습니다. 분만 때까지 계속 입덧때문에 몸에 영양이 부족해서 단백질과 철분같은 수액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임신 중기 하는 피검사가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아픈 아이를 낳을가 봐 많이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더 정밀한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셔서 또 한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막갈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 배속 태아가 정상 태아보다 많이 작아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응급 분만하라고 했습니다. 금방 수술을 받은 것이 저한테는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 아이를 낳은 후에 분유를 먹이니까 아이 몸무게가 금방 늘더라고요. 지금은 32개월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은 저에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중급반

장원원

엄마

김수연

아빠

나



어릴 때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곧 가족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곳이 나의 작은 가족이 있는 곳이 되었다. 저에게 가족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저녁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쫄만도 아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희망을 전하고, 기쁨과 눈물, 행복을 나누는 곳이다. 또한 서로의 걱정과 마음속 이야기
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곳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하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가족이다.

가족의 의미

저에게 가족은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며 힘이 되어 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툼 때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고, 가족이 있어서 힘든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기쁨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주는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곳입니다. 저도 가족에게
사랑과 행복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가족의 의미 ♡

저에게 가족은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남편과 강아지 두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 아끼고 즐겁게 지냅니다.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함께하는
것이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아

토픽 B

26. 09. 27

가족의 의미

저에게 가족은 항상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제가 힘들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 줍니다. 그래서 가족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 보면 가끔 의견이 다르거나 서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싸울 때도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과 배려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 줍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영명

No. 1

가족의 의미

가족은 사랑의 항구입니다. 가족은 누

가 옹고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곳이야

나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사 주

는 곳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왔어?” 하

고 반겨 주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힘

든 일을 겪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집에 돌아오면 내 이야기를 들어 주

는 사람이 있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10×20

10×20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에게 세상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입니다. 밖에서는 다른 사
 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아
 가지만, 집에서 그 가면을 벗어도 편
 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 주
 는 곳, 부모님의 따뜻한 잔소리와 사랑
 관심과 보살핌이 있는 곳이 바로 가족
 입니다.

이럴 때는 형제 자매와 작은 물건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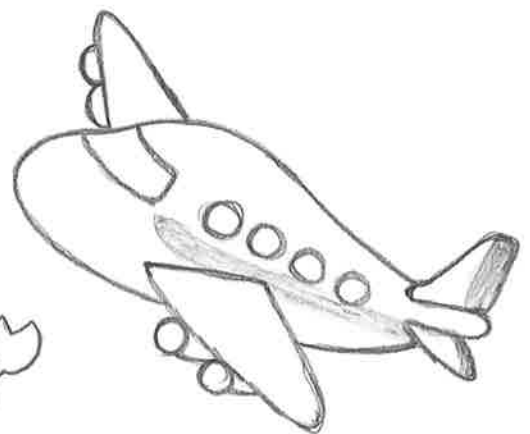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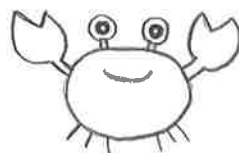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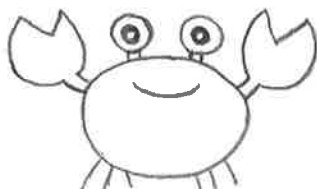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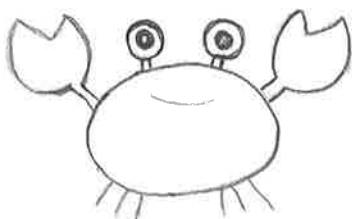
를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했
 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화해하고, 밤이 되면 한 이빨 속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추억
 속에도 가족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
 을 이겨 내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가족은 언제나 나를 위해 한 줄기

불빛을 밝혀 주는 곳입니다.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족은 돌아갈 수
 있는 뿌리이며,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
 도 나를 놓고 갈러 준 그 곳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고, 부모님이 떠나시면
 인생에는 돌아갈 길만 남는 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

카토 카요

제가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은 "한국 국내 여행"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 부산, 제주도, 경주, 수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 중에서도 가보고 싶은
곳은 여수입니다.
친구가 여수는 경치가 아름답다고 추천해줘서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어요. 실제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높은 곳은 서툴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여수의 바다와
도시 풍경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수 바닷가를
걸으며 예쁜 야경을 보고 싶습니다.
또 간장게장 같은 맛있는 밥도 먹고 싶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여수뿐만 아니라 아직 가보지 않은 곳도 다니면서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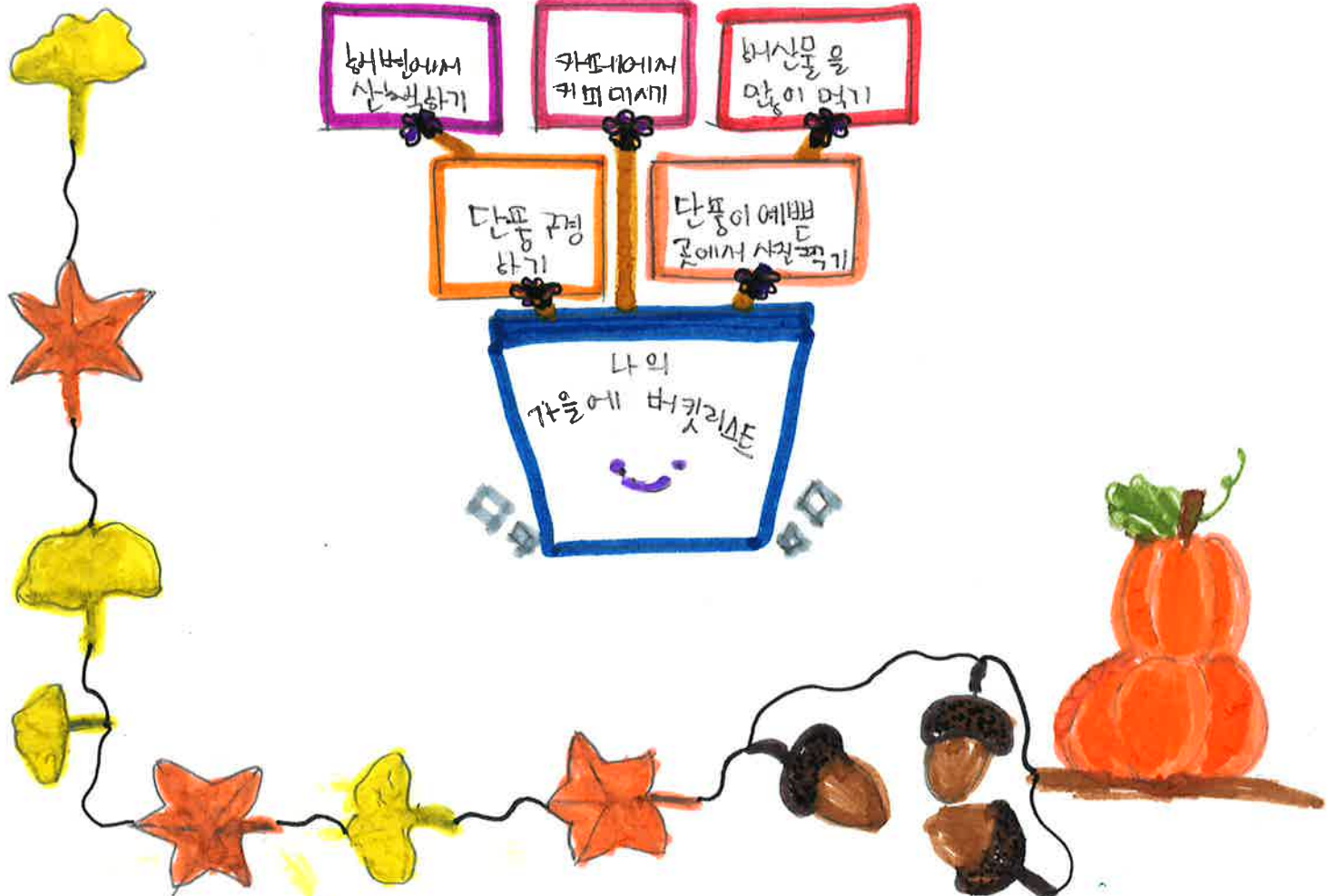




주제: 가을에 여행 가고 싶은 곳

안녕하세요, 저는 송에이라고 해요, 필리핀에서 한국 온지 9년 됐어요.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을에 지방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명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설악산을
가보고 싶어요. 설악산은 한국에서 단풍이 제일 아름답다고 해요.
등산을 마친 후에 바다를 분며 먹는 싱싱한 해산물은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속초에 가서 오징어와 해산
물을 많이 먹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이번 가을에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별기

9월 11일 금요일 살씨가 좋은 맑음.

아침에 일어 4서 콩나물국을 만들었어요 아침 식사 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을 가볍게 청소했어요.

친구와 부평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샀어요. 점심은 중국 식당에서 먹고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한국의 카페는 정말 예뻐서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후에 집에서 한국어 숙제를 하고 저녁은 가족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즐거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초급 2반. 류소우영 ~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이 우리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저에게 그런 사람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이신 기란 어머니입니다.

낯설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행상하시는 모든 모습에 나의 분초기가 됩니다.

예순을 넘긴 연세에도 온화한 품위를 지니셨고, 세월은 그분 얼굴 위에 아름다운 미소를 새겨놓았습니다.

겨울 눈 위에 내리는 부드러운 달빛처럼, 어머니의 온빛 머리칼은 은은한 빛을 내며 흐릅니다. 어머니의 인내심은 드넓은 바다처럼 깊고, 내 곁을 지켜주는 평온한 존재입니다.

정정 어린 고향의 맛과 따듯한 손길을 통해, 이 낯설고 새로운 땅의 맛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친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갈 때면, 어머니의 포근한 눈빛이 내 마음의 그늘을 거두어 줍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했던 공항 터미널, 그 속에서 차갑게 불던 겨울바람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따듯하고 열린 품에 안긴 순간, 공항의 그 쓸쓸한 한기는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환한 식탁이 차려진 집으로 나를 맞아주셨던 날, 고요한 밤 속 오직 나만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낮게 속삭이던 그 한마디, 어머니의 말씀은 내가 딛고 일어서 성장할 힘이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도 내가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저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나를 정말 당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아름답고도 강인하며, 한없이 다정한 영혼, 이보다 더 커다란 버팀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고 자유로운 분, 어머니는 내가 온 마음 다해 존경하는 나의 기적입니다.

- 김 안젤리카 로.



나의 하루 ^^

나는 한국에서 6년쯤 살았는데 날마다 하는 일이 다 비슷한 것 같다. 아침 7시 20분에 일어나 후에 세수를 한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한다. 8시 45분쯤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약 5시간 동안에 집안일하고 관심 많은 일을 한다. 예를 들어 빨래를 돌리고 나서 낸다. 전날 빨래를 건다. 청소기도 돌린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한다. 나는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휴대폰으로 라이브 쇼핑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다. 점심 먹는 동안 드라마도 본다. 오후 2시 20분부터 아이간식을 준비한다. 3시쯤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온다. 4시쯤 아이를 태권도 학원에 맡긴다. 저녁을 먹은 후에 아이 숙제를 봐준다. 우리 집은 보통 밤에 10시쯤 잠을 잔다. 이것은 나의 평범한 하루이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 치바현

< 제 고향, 일본의 치바현을 소개합니다 >

시라이 나나코

특징

바다, 산, 농산물, 역사, 관광 등이
있는 현입니다.
도쿄의 옆이라서 아주 편리합니다.

접근성 (전철)

도쿄역 → 치바역 40분

나리타공항 → 도쿄역 1시간

좋아하는 점

제가 태어나서 치바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도시와 시골 어느 쪽도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디즈니리조트 (우라야스시)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씨가
있습니다.

아몰렛 (키사라즈시)
일본에서 제일 큰
아몰렛 입니다!

아쿠아라인 (키사라즈시)
가나가와현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더 목장 (키미즈시)
소, 말, 돼지, 토끼 등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우유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1. 회덮밥

바다가 많아서 생선이 신선합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2. 라면

가쓰우라 탄탄면이 유명합니다.
양파와 마늘이 많이 들어 있고 조금 매워요

3. 당콩

일본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특히 당콩 파이가 좋습니다.

나리타산 신소지 (나리타시)

역사 있는 절입니다. 길거리 음식, 떡,
장어가 유명합니다.

나리타 공항 (나리타시)

이누보사키
(조우시시)

일본에서 제일 일찍
해돋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로계곡 (오모타기동)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집 (조난동)
공기가 맑아서 별이
잘 보입니다.

아침 시장 (오모하라시)

특히 큰 새우가 유명합니다.
신선한 생선이라ং 조개도 팔아요.

쇼핑하는 곳

아몰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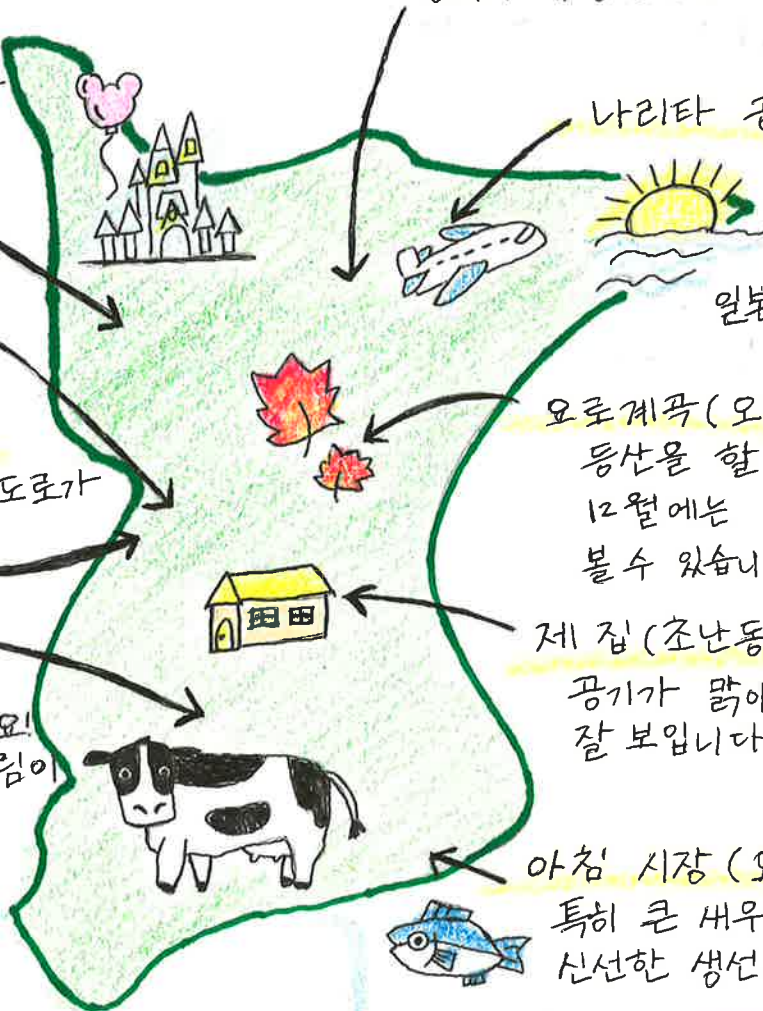
이온몰 (롯데몰과 같은 곳)

라라포트 (스타필드와 같은 곳)

돈키호테

유명한 농산물

당콩, 배, 수박, 야채, 쌀





송도 아파트, 개어나고 싶지 않은 꿈

안녕하세요, 저는 전미한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5개월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재미있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송도 센트럴파크입니다.
송도는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있어서 정말 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송도 센트럴파크에 데려갔을 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여기 아파트를 살 수 있어?”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도 아마 못 살 거야.”

그래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로또를 자주 사야 겠네?”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로또 1등에 열 번은 당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같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찍 자고 송도 아파트 꿈을 꾸자!”

그게 송도 아파트를 가장 쉽고 빠르게 가

질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송도 센트럴파크는

아름다운 공원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게 하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송도 아파트 꿈을 꾸니다!

2026. 09. 28

